

멈춤없는 한 걸음이 쌓여 사상 첫 1700타점 ‘금자탑’

‘영원한 현역’ 최형우가 써 내려가는 KBO리그 타자 부문 새 역사

통산 타점 1위, 2루타(533개)·루타(4천323) 부문 최다 기록
“꿈의 2천 타점…시간과 싸우는 마지막 도전도 멈추지 않겠다”



KIA 타이거즈의 ‘해결사’ 최형우가 KBO 리그 역사상 최초로 개인 통산 1천700타점을 돌파하며, 또 하나의 금자탑을 쌓았다. 불혹을 넘어서 베테랑의 방망이는 여전히 뜨겁고, 그가 쌓아 올린 타점 하나하나가 곧 KBO의 역사다.

최형우는 지난 24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25 신한 SOL 뱅크 KBO리그’ 키움과의 원정경기에서 1회초 1사 1,2루에서 상대 선발투수 김윤하로부터 중월 3점 홈런을 터뜨렸다. 시즌 14호 홈런이다.

전날까지 1천688타점을 기록했던 그는 이 한 방으로 개인 통산 1천701타점에 도달하며 KBO 리그 역대 최초 1천700타점 돌파라는 위업을 달성했다. 이 부문 통산 2위인 최정(SSG 랜더스·1천587타점)과는 무려 114개 차이로, 당분간 깨지기 어려운 독보적인 기록이다.

아울러 시즌 50타점째를 올리며, 18시즌 연속 50타점이라는 또 하나의 대기록도 함께 써냈다. 최정에 이은 역대 두 번째 기록이다.

2002년 삼성 유니폼을 입고 프로에 데뷔한 그는 2008년 71타점을 시작으로 줄곧 중심타선에서 생산력을 입증해왔다.

2011년(118타점), 2016년(144타점) 두 차례

타점왕에 등극했고, 특히, 2014~2016 시즌과 KIA로 이적한 2017~2018시즌까지 5년 연속 100타점 이상을 올렸다. 이 기록은 박병호, 이대호에 이어 역대 세 번째이며, 좌타자로는 최초다.

2020년 115타점을 끝으로 한 동안 주춤했지만, 지난해 109타점으로 4년 만에 다시 100타점 고지에 복귀하며 저력을 재확인시켰다.

올 시즌에도 전반기 막판 50타점을 넘어서며, 후반기 100타점 달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 같은 기대감은, 지금 그의 전성기 못지 않은 활약에서 비롯된다.

총 71경기에 출전해 타율 0.327(4루), OPS 1.018(1루), 장타율 0.585(2루), 2루타 20개(3루), 홈런 14개(공동 3루), 루타 145(3루) 등 주요 타격 지표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그의 존재감은 단지 ‘현재’에만 머물지 않는다.

그는 통산 타점 1위를 비롯해, 2루타(533개), 루타(4천323루타) 부문에서도 KBO 최다 기록을 보유 중이다.

이외에도 개인 통산 출장 2천252경기(역대 3위, 홈런 409개로 역대 4위에 올라 있으며, 커리어 전반에 걸쳐 기록을 새로 써 내려가고 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그가 가장 큰 애착을



지난 24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키움과의 경기에서 1회초 스리런 홈런을 터뜨리며 KBO리그 사상 첫 1천700타점 대기록을 세운 KIA 베테랑 최형우가 팀 동료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보이는 기록은 다름 아닌 ‘타점’이다.

최근 본지와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2천 타점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서도 “은퇴 전까지 최대한 많은 타점을 남기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타점은 곧 팀에 도움이 되는 기록이기 때문이다.

단순한 개인 성과를 넘어서, 팀을 향한 그의 일관된 헌신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세월의 무게를 감안하면 언제 은퇴를 택

해도 이상할 건 없다. 내년이면 FA 자격도

얻지만, 실제 선언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그렇다고 해서 그 꿈을 완전히 내려놓은 건 아니다. 타점에 대한 애정은 여전하고,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하기도 어렵다.

향후 2시즌 동안 매년 100타점을 쌓는다고 해도 1천900타점 수준에 머문다.

하지만, 3시즌 이상을 꾸준히 이어간다면

KBO 최초의 2천 타점이라는 미지의 영역도

그리 먼 일은 아니다.

물론, 지금까지 그 누구도 밟아보지 못한 길이다. 125년 역사의 메이저리그에서도 2천 타점을 넘긴 이는 단 세 명뿐이다.

그럼에도, 이 대기록에 가장 가까이 다가선 이는 단연 최형우다.

그 마지막 이정표를 향해 다시 한 걸음을 내딛을지, 그 선택은 오직 그 자신과 시간만

이 알고 있다.

/주홍철 기자

동일미래과학고 박솔민, 전국학생스쿼시선수권 우승

올시즌 5관왕 달성

동일미래과학고 박솔민(2년)이 제22회 회장배 전국학생스쿼시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시즌 5관왕을 달성했다.

박솔민은 지난 22일 울산 문수스쿼시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여자 18세이하부 개인전 결승에서 서예은(산본고)을 세트스코어 3-0으로 꺾고 정상에 섰다.

박솔민은 이번 대회 우승으로 시즌 5개 대회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그는 앞서 제5회 태산배 전국 스쿼시 선수권대회(3월)와 제21회 대한체육회장배 전국 스쿼시 선수권대회(4월), 제19회 회장배(전북) 전국 스쿼시 선수권대회(4월), 제25회 회장배전 한국 스쿼시 선수권대회(6월)에서도 우승했다.

박솔민은 김태영(동일미래과학고 2년)과 호흡을 맞춘 여자 18세이하부 복식에서 은메달을 추가했다.

초등학교 6학년이던 2020년 토요 스포츠프로 그램을 통해 스쿼시에 입문한 박솔민은 그해 열린 제16회 대한체육회장배 스쿼시대회 여자



제22회 회장배 전국학생스쿼시선수권대회 여자 18세이하부 개인전 우승을 차지한 박솔민(왼쪽 3번째)이 시상식에서 입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스쿼시연맹 제공〉

초등부 1위, 제20회 회장배전한국스쿼시대회 여자초등부 1위를 차지하며 주먹을 받았다.

송의중에 진학한 그는 성실함을 바탕으로 정석을 지키는 플레이로 출전한 대회에서 모두 메달을 휩쓸며 경기력을 인정받았다.

고교무대에서 독보적인 활약을 이어 온 박솔민은 7월1-5일 경북 김천에서 열리는 아시아

주니어스쿼시선수권대회에 청소년 대표로 출전한다.

한편, 화정중 문하람(3년)은 여자 15세이하부 개인전에서 은메달, 동일미래과학고 서한규(2년)와 박은찬(3년)은 리그전으로 치른 18세이하부 복식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박희중 기자



지난 24일 광주장애인국민센터에서 열린 장애학생체육대회 배드민턴 경기 모습.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제공〉

광주시교육감배 장애학생체육대회 성료

34개 학교 300여명, 6개 종목 열전

제9회 광주시교육감배 장애학생체육대회가 지난 24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에는 광주지역 6개 특수학교를 비롯해 34개 학교에서 총 300여 명이 참가해 배드민턴, 보치아, 수영, 실내조정, 육상, 탁구 등 6개 종목에서 갈고 닦은 기량을 겨뤘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은 광주시교육감배 장애학생체육대회는 스포츠를 통해 우의를 다지고 운동의 즐거움을 느끼는 학생 참여형 대회로, 장애학생의 체육 참여를 도모해 학생들의 건강관리와 여가활동을 증진하고, 우수한 학생

선수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또한 경기 결과는 내년 부산에서 열리는 제20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광주 대표 선발에 활용된다.

한상득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은 “체육활동을 통한 장애학생들의 여가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광주시교육청과 함께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며 “교육청-체육회-학교 간 업무협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장애인체육 발전의 주춧돌이 되는 장애학생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광주체고 배드민턴부, 대통령기 종별대회 금·동

혼복여서영·여복이나라·김나연銅

광주체고 배드민턴부가 2025 대통령기 전국종별배드민턴선수권대회 겸 제33회 한중일 주니어종합경기대회 선수 선발전에서 금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수확했다.

광주체고는 지난 21일 경북 김천실내체육관과 배드민턴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고등부 혼합복식에서 여서영(1년)이 현수민(전대사대부고 3)과 팀을 이뤄 금메달을 따냈고, 이나라(3년)와 김나연(2년)은 여고부 개인복식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1회전을 부전승으로 통과한 여서영-현수민

조는 2회전에서 이천구(이천제일고)-김민서(포천고) 조를 2-0으로, 3회전서 정영제(구미시체육회)-강유민(청송여고) 조를 2-1로, 8강전서 박시연(군산동고)-문인서(전주성심여고) 조를 2-1로, 준결승서 김태현(정주고)-한승연(전주성심여고) 조를 2-0으로 연파하고 결승에 올랐다. 여서영-현수민 조는 결승서 강승현(구미시체육회)-곽민아(청송여고) 조를 만나 2-0(21-17, 21-18)로 완파했다.

엄길훈 광주체고 교장은 “이 여세를 몰아 제106회 전국체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도 변함없는 지원과 응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희중 기자



대통령기 전국종별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서 선전을 펼친 광주체고 배드민턴 선수단. 왼쪽부터 김나연, 여서영, 이나라. 〈광주체고 제공〉

AI페퍼스 ‘한국실업배구연맹 & 프로배구 퓨처스 챔피언십’ 출전

여자프로배구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가 ‘2025 한국실업배구연맹 & 프로배구 퓨처스 챔피언십’에 참가한다.

한국 배구 실업팀과 프로 유망주들이 한자리에 모여 경쟁하는 ‘2025 한국실업배구연맹 & 프로배구 퓨처스 챔피언십’은 다음 달 2일 충북 단양에서 개막해 10일까지 열린다.

이번 대회에는 처음으로 프로배구 남녀부 14개 팀(남녀부 각 7개 팀)이 모두 참가한다.

여자부에서는 A조에 AI페퍼스를 포함해 한국도로공사, IBK기업은행, 대구시청, 포항시체육회가, B조에는 흥국생명, 정관장, 현대건설, GS칼텍스, 수원특례시청, 양산시청이 각각

편성됐다.

남자부는 A조에 대한항공, 삼성화재, OK저축은행, 국군체육부대(상무), 부산시체육회가, B조에 현대캐피탈, 한국전력, 우리카드, K B손해보험, 영천시체육회, 화성특례시청으로 꾸러졌다.

AI페퍼스는 7월3일 오후 1시30분 IBK기업은행과의 첫 경기를 시작으로 4일 오전 10시 한국도로공사, 5일 오전 11시30분 포항시체육회, 7일 낮 12시 대구시청과 경기를 치른다.

남녀부 모두 A조와 B조 풀리그를 거쳐 각조 1위와 2위가 나서는 준결승전은 9일 치러지며 10일 결승전으로 이어진다.

/박희중 기자